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327

JCCT 2022-11-39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한국 그림책의 면지 유형

The Endpaper Types of Bologna Ragazzi Award Korean Picturebooks

남아름*, 김상림**

A Reum Nam*, Sang Lim Kim**

요약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 면지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2022년 현재까지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한국 그림책 25권의 면지 유형을 세 가지 기준(‘앞뒤면지 동일성’, ‘미술 유형’, ‘콘텐츠 유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앞뒤면지가 서로 상이한 그림책이 약간 더 많았고, 면지의 미술 유형은 삽화, 패턴, 단색 순으로 나타났으며, 콘텐츠 유형으로는 페리텍스트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한국 그림책의 면지가 서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림책 읽기 활동에서 면지의 심미적, 서사적 역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한국 그림책, 면지 유형, 볼로냐 라가치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ype of endpapers in Korean picturebooks that won the Bologna Ragazzi Award. The endpapers were classified by three standards: identities between front endpapers and back endpapers, type of arts, and type of contents. As results, picturebooks with identities between front endpapers and back endpapers were slightly more than ones with unidentities. Most of art types were illustrated, followed by patterned and plain. In addition, the peritextual contents were found to be the most frequently used content type in endpape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endpapers of the Korean picturebooks that won the Bologna Ragazzi Award were related to the text contents, which suggests the important roles of endpapers in picturebook activities.

Key words : Korean Picturebooks, Endpaper Types, Bologna Ragazzi Award

1. 서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은 견고성과 심미감을 위해 주로 하드커버를 사용하므로 면지(endpapers)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면지는 책 표지와 본문을 이어주는 종이나 천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책의 제본 방법과 관련된다. 제본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드커버(hardcover) 또는 양장본(洋裝本)’과 ‘소프트커버(softcover) 또는 페이퍼백(paperback)’이 그것이다.

비록 면지가 표지와 본문을 이어주는 물리적 기능에서 시작됐으나, 여기에 인쇄가 가능하여 작가가 디자인과 구성에 관여하게 된다. 이 같은 특성으로 면지는 물리적 장치를 넘어 장식적 역할도 가능하며 나아가 다양한 창조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면지는 작가에 의해

*정회원, 인천대학교 대학원 유아·숲·자연교육학과 박사수료 (제1저자)

**정회원,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9월 30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27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3일

Received: September 30, 2022 / Revised: October 27, 2022

Accepted: November 3, 2022

**Corresponding Author: slkim@inu.ac.k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치밀하게 고안될 수 있으며, 서사(text) 예측과 상상을 위한 정보 또는 추가 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가진다 [1-5]. 이에 남아름과 김상림[6]은 그림책에서 면지가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고, 이를 교육활동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드커버 방식으로 그림책을 제본하는 경우 앞뒤표지를 본문과 물리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면지를 사용하므로, ‘앞면지(front endpapers)’와 ‘뒤면지(back endpapers)’가 존재한다. Sipe와 McGuire[5]의 비유에 의하면, 앞뒤면지는 그림책 서사를 보여주는 무대의 막과 같다. 즉, 그림책을 열었을 때 아동이 보게 되는 첫 부분이 앞면지이고, 읽은 후 책을 닫기 전 보는 마지막 부분이 뒤면지이다. 이렇게 면지는 아동을 그림책의 서사 세계로 연결해주는 입구 및 출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책에서 면지가 가지는 나름의 주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면지의 중요성과 유형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이르러 시작되었다. Sipe와 McGuire[5]는 그림책 면지에 포함된 그림의 서사적 관련성을 강조하면서, ‘그림의 유무’ 및 ‘앞뒤면지 동일성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을 제안했다. 즉, ‘그림이 없고 앞뒤면지 동일(Unillustrated, Identical Front and Back Endpapers)’, ‘그림이 없고 앞뒤면지 비동일(Unillustrated, Dissimilar Front and Back Endpapers)’, ‘그림이 있고 앞뒤면지 동일(Illustrated, Identical Front and Back Endpapers)’, ‘그림이 있고 앞뒤면지 비동일(Illustrated, Dissimilar Front and Back Endpapers)’이다. (참고로 ‘illustrated’를 ‘삽화’ 대신 ‘그림’으로 번역한 것은, 해당 범주 내에 삽화뿐만 아니라 단색 또는 패턴 그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Duran과 Bosch[7]는 Sipe와 McGuire[5]가 제시한 면지의 그림 유형을 ‘단색(plain)’, ‘패턴(patterned)’, ‘삽화(illustrated)’로 확장했다. 이와 함께 그림책 면지가 서사(text)를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파라텍스트(paratext)가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그림책 면지를 콘텐츠와의 관련성에 근거하여 ‘페리텍스트 콘텐츠(Peritextual Contents)’와 ‘에피텍스트 콘텐츠(Epitextual Contents)’로 구분했다. ‘페리텍스트 콘텐츠’는 면지의 콘텐츠가 그림책의 서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의미하여, ‘에피텍스트 콘텐츠’는 면지의 콘텐츠가 서사의 이야기 요소와 직결되지는 않으나 그림책 전반과 관련된 경우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Sipe와 McGuire[5] 및 Duran과 Bosch[7]의 제안을 토대로 그림책 면지 유형을 제시하면 ‘앞뒤면지 동일성’, ‘미술 유형’, ‘콘텐츠 유형’의 세 가지가 도출된다 하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그림책 면지는 저자가 독자와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장치이며, 최근 소수 해외 논문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형에 대한 분류 또한 제안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그림책 면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 면지 유형을 ‘앞뒤면지 동일성’, ‘미술 유형’, ‘콘텐츠 유형’의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책 면지 유형을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여한 한국 그림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볼로냐 라가치상(Bologna Ragazzi Award)은 1966년에 제정됐다. 어린이 도서 분야의 노벨상 격으로, 라가치는 이탈리아어로 ‘어린이’라는 의미를 가진다[8]. 해마다 세 가지 기준(창작성, 교육적 가치, 예술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내용뿐만 아니라 미술적 표현이 뛰어난 그림책을 선정하는데,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그림책 박람회인 ‘볼로냐 아동 도서전(Bologna children’s Book Fair)’ 개막식 당일 수여된다. ‘픽션(Fiction)’, ‘논픽션(Non Fiction)’, ‘뉴호라이즌(New Horizons)’의 3개 분야로 시작했으며, 2009년 ‘오페라 프리마(Opera Prima)’, 2015년 ‘북스앤씨드(Books & Seeds)’, 2018년 ‘아트건축디자인(Art-Architecture & Design)’, ‘코믹스(Comics)’가 추가되어 현재 총 7개 분야로 나누어 시상한다.

2004년 한국 그림책 두 권이 국내 최초로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했다. 논픽션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지하철은 달려온다』 [9]와 픽션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팥죽할머니 온다』 [10]가 그것이다. 이후로 2006년에는 『마법에 걸린 병』 [11], 2009년 『미술관에서 만난 수학』 [12]이 추가로 수상하여, 2022년 현재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한국 그림책은 총 31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용과 미술적 표현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된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 한국 그림책의 면지 유형을 ‘앞뒤면지 동일성’, ‘미술 유형’, ‘콘텐츠 유형’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2016년 김정준과 신원애[8]가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한국 그림책 10권을 분석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그림책에 나타난 파라텍스트의 전반적인 의미를 제시 하였기에 면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한국 그림책의 앞뒤면지 동일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한국 그림책 면지의 미술 유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한국 그림책 면지의 콘텐츠 유형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22년까지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한국 그림책 25권이다(<표 1>). 한국 그림책이 최초로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2004년 이후 2022년까지 총 31권이 해당 상을 수상했다. 이 중에서 절판된 5권과 소프트커버 사용으로 면지가 없는 1권을 제외한 25권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2. 분석 기준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한국 그림책을 분석하기 위해 Sipe와 MuGuire[5] 및 Duran과 Bosch[7]가 제안한 면지 유형을 토대로 세 가지의 기준을 사용했다. 분석 기준과 이에 따른 유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1.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 한국 그림책 및 최종 분석 대상 목록

Table 1. List of Korean Picturebooks Winning Bologna Ragazzi Award and Selected Picturebooks

	제목	수상연도/분야	작가*	출판사(출판연도)	선정 여부
1	지하철은 달려온다	2004/논픽션	신동준	초방책방(2003)	×(절판)
2	팔죽할뎀이 온다	2004/픽션	조호상/윤미숙	웅진닷컴(2003)	×(절판)
3	마법에 걸린 병	2006/픽션	고경숙	재미마주(2005)	○
4	미술관에서 만난 수학	2009/논픽션	김윤주	여원미디어(2009)	×(절판)
5	돌로 지은 절 석굴암	2010/픽션	김미혜/최미란	웅진생크빅(2009)	○
6	마음의 집	2011/논픽션	김희경/호미엘레프스카	창비(2010)	○
7	거짓말 같은 이야기	2011/논픽션	강경수	시공주니어(2011)	○
8	그림의 하얀캔버스	2012/오페라프리마	이현주	상출판사(2011)	○
9	눈	2013/픽션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이지원)	창비(2012)	○
10	가시산	2013/오페라프리마	박선미	쌤북스(2012)	×(절판)
11	The Hair	2014/오페라프리마	김수영	쌤북스(2013)	×(절판)
12	면지아이	2014/뉴호라이즌	정유미	컬처플랫폼(2011)	○
13	나의 작은 인형상자	2015/픽션	정유미	컬처플랫폼(2015)	×(소프트커버)
14	담	2015/픽션	지경애	반달(2014)	○
15	민들레는 민들레	2015/논픽션	김장성/오현경	이야기꽃(2014)	○
16	세상에서 가장 큰 케이크	2015/북스앤씨드	안영은/김성희	주니어김영사(2014)	○
17	위를 봐요	2015/오페라프리마	정진호	현암주니어(2014)	○
18	떼루떼루	2015/뉴호라이즌	박연철	시공주니어(2013)	○
19	이빨 사냥꾼	2017/픽션	조원희	이야기꽃(2014)	○
20	나무, 춤춘다	2018/뉴호라이즌	배유정	반달(2016)	○
21	너는 누굴까?	2018/오페라프리마	안효림	반달(2017)	○
22	벽	2018/아트건축디자인	정진호	비룡소(2016)	○
23	그림자 하나	2019/오페라프리마	채승연	반달(킨더랜드)(2018)	○
24	사과나무발 달님	2019/픽션	권정생/윤미숙	창비(2017)	○
25	삼거리 양복점	2020/오페라프리마	안재선	웅진주니어(2019)	○
26	할머니를 위한 자장가	2020/뉴호라이즌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이지원)	비룡소(2019)	○
27	모모모모모	2021/논픽션	밤코	향(2019)	○
28	엄청난 눈	2021/오페라프리마	박현민	달그림(2020)	○
29	이파라파나무나무	2021/코믹스	이지은	사계절(2020)	○
30	여름이 온다	2022/픽션	이수지	비룡소(2021)	○
31	커다란 손	2022/논픽션	최덕규	윤에디션(2020)	○

* 글과 그림 작가가 다른 경우 '글/그림'으로 표기, 옮긴이는 '(O)'안에 표기

표 2. 그림책 면지 유형

Table 2. Endpaper Types of Picturebooks

기준	유형
앞뒤면지 동일성	① 동일, ② 상이
미술 유형	① 단색, ② 패턴, ③ 삽화
콘텐츠 유형	① 페리텍스트 콘텐츠(주인공, 공간, 주제, 서문·끝맺음, 보너스 트랙) ② 에피텍스트 콘텐츠(출판사 정보, 작가 정보, 헌정사, 독자를 위한 구성) ③ 페리텍스트와 에피텍스트 콘텐츠 ④ 콘텐츠와 무관

첫 번째 기준은 ‘앞뒤면지 동일성’이다. 앞면지와 뒤면지가 ‘동일’한 경우와 ‘상이’한 경우가 포함된다. 두 번째 기준은 ‘미술 유형’으로, ‘단색’, ‘패턴’, ‘삽화’로 구분된다. ‘단색’은 그림이 없는 면지로, 흰색이나 유색의 한 가지 색을 포함한 면지를 의미한다. ‘패턴’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그림을 반복하여 구성한 경우이며, ‘삽화’는 패턴이 아닌 특정한 이미지의 그림이 있는 경우이다.

세 번째 기준은 ‘콘텐츠 유형’이다. 콘텐츠는 면지에 포함된 그림과 글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면지 콘텐츠가 서사와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따라 ‘페리텍스트 콘텐츠’, ‘에피텍스트 콘텐츠’, ‘페리텍스트와 에피텍스트 콘텐츠’, ‘콘텐츠와 무관’으로 구분했다. ‘페리텍스트 콘텐츠’는 그림책 서사의 이야기 요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콘텐츠로 여기에는 이야기 관련 요소인 ‘주인공(Character)’, ‘공간(Location)’, ‘주제(Theme)’, ‘서문·끝맺음(Preface and Epilogue)’, ‘보너스 트랙(Bonus Track)’이 포함된다. ‘에피텍스트 콘텐츠’는 이야기 요소와 직접 연결되는 않으나 그림책 전반과 관련된 콘텐츠로 ‘출판사 정보(Collection, Series, or Publisher)’, ‘작가 정보(Author)’, ‘헌정사(Dedications and Tributes)’, ‘독자를 위한 구성(Reader)’ 등이 포함된다. 페리텍스트와 에피텍스트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페리텍스트와 에피텍스트’로 구분했으며,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콘텐츠와 무관’으로 분류했다.

3. 분석 방법 및 절차

선정된 그림책 25권의 면지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각 연구문제별로 빈도와 %의 기술통계를 사용했다. 단, 연구문제 2와 3에서 면지의 미술 유형과 콘텐츠 유형을 분류할 때에는, 앞면지와 뒤면지 각각을 분석 단위로 사용했다. 또한, 분석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연구자별 개별 분석 후 협의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2022년까지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한국 그림책 25권의 면지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앞뒤면지 동일성을 분석한 결과, ‘상이한 경우’($n=14$, 56.0%)가 ‘동일한 경우’($n=11$, 44.0%) 보다 많았다. 둘째, 앞뒤면지 각각을 구분하여 면지의 미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삽화’($n=21$, 42.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패턴’($n=18$, 36.0%), ‘단색’($n=11$, 2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앞뒤면지가 동일’한 그림책($n=11$, 44.0%)의 미술 유형을 살펴보면, 다수가 ‘패턴’($n=6$, 54.0%)이었으며, ‘단색’($n=4$, 36.3%)과 ‘삽화’($n=1$, 9.1%)도 일부 나타났다. 반면, ‘앞뒤면지가 상이’한 경우($n=14$, 56.0%), 다수($n=8$, 57.1%)에서 그림의 내용이 다르지만 앞뒤면지 모두 삽화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앞뒤 상이한 패턴($n=2$, 14.2%), 앞뒤 상이한 단색($n=1$, 7.1%), 앞면지 삽화와 뒤면지 단색($n=1$, 7.1%)의 유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앞면지 패턴과 뒤면지 삽화($n=1$, 7.1%), 앞면지 삽화와 뒤면지 패턴($n=1$, 7.1%)이 나타났다.

셋째, 앞뒤면지 각각을 구분하여 면지의 콘텐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면지가 ‘페리텍스트 콘텐츠’($n=38$, 76.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수 면지가 ‘에피텍스트 콘텐츠’($n=2$, 4.0%), ‘페리텍스트와 에피텍스트 콘텐츠’($n=2$, 4.0%), ‘콘텐츠와 무관’($n=8$, 16.0%)으로 나타났다.

표 3.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한국 그림책의 면지 분석 결과
Table 3. Analysis of the Endpapers of Korean Picturebooks Winning Bologna Ragazzi Award

기준	유형	n (%)
앞뒤면지 동일성	① 동일	11 (44.0)
	② 상이	14 (56.0)
	합계	25(100.0)
미술 유형	① 단색	11 (22.0)
	② 패턴	18 (36.0)
	③ 삽화	21 (42.0)
	합계	50(100.0)
콘텐츠 유형	① 페리텍스트 콘텐츠	38 (76.0)
	② 에피텍스트 콘텐츠	2 (4.0)
	③ 페리텍스트와 에피텍스트	2 (4.0)
	④ 콘텐츠와 무관	8 (16.0)
	합계	50(100%)

먼저 다수의 그림책이 페리텍스트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 그림책 면지가 서사와 다양하게 관련되므로 그림책 읽기 활동에서 면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남아름과 김상림[6]의 제안을 실증적으로 지지한다. 나아가 분석 대상 면지에 담긴 페리텍스트 콘텐츠로 '주인공, 공간, 주제, 서문·끝맺음, 보너스트랙'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uran과 Bosch[7]가 제안한 다양한 페리텍스트적 요소가 한국 그림책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사와 부모가 그림책 면지에 담긴 다양한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에피텍스트 콘텐츠 유형으로 분류된 그림책은 두 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국내 그림책 면지의 에피텍스트적 요소가 해외 그림책에 비해 다소 제약을 가진다는 추론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여덟 권의 그림책에서 면지가 콘텐츠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드물긴하지만 그림책의 면지가 파라텍스트(페리텍스트 콘텐츠, 에피텍스트 콘텐츠)와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Duran과 Bosch[7]의 제안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콘텐츠와 무관한 면지의 미술 유형은 삽화가 아닌 패턴과 단색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지에 삽화가 포함된 경우 콘텐츠와의 연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그림책 서사를 보여주는 무대의 막과 같은 앞뒤면지는 때로는 상이하게 때로는 동일하게 구성되어 콘텐츠와 관련된 서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그림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사를 이해할 때, 서사 세계로 연결해주는 입구 및 출구와 같은 면지 탐색이 간과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림책 선정과 읽기를 지원하는 부모와 교사가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면지의 다양한 유형을 인식하고 탐색한다면, 아동의 그림책 읽기를 더욱 의미있게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한국 그림책의 면지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한국 그림책 31권 중 소프트웨어로 면지가 없거나 절판된 여섯 권을 제외한 25권을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한국 그림책 면지의 앞뒤 동일성은 '동일'한 것보다 '상이'한 것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그림책 면지의 미술 유형은 삽화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패턴, 단색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림책 면지의 콘텐츠 유형은 페리텍스트 콘텐츠가 가장 많았으며, 에피텍스트 콘텐츠, 페리텍스트와 에피텍스트 콘텐츠, 콘텐츠와 무관한 면지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한국 그림책 면지의 대부분이 그림책 서사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면지의 심미적, 서사적 역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그림책 구성요소인 면지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한국 그림책의 면지 유형을 최초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국내 최초로 Sipe와 McGuire[5] 그리고 Duran과 Bosch[7]가 제시한 면지 분석 기준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이후 그림책 면지 분석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한국 그림책의 면지를 분석하였기에 아동 그림책을 읽거나 사용하는 아동과 교육자 및 부모에게 면지 활용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한국 그림책에 국한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다양한 그림책 군의 면지를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그림책 면지 유형을 분석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면지와 서사 간 관련성이 증명되었으므로, 추후연구에서 심도 있는 내용분석을 통해 구체적 관련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S. H. R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dpapers and the Narrative in Korean Picturebooks". *Folktales and Translation (FT)*, Vol. 19, pp. 93-118, 2010.
- [2] Shin, S. N., Study on The Features and Functions of the Paratext in Postmodern Picturebooks: Focused on the Process of Young Children's Reading Postmodern Picturebooks.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South Korea, 2011.
- [3] J. S. Kim. "Paratext in Picturebook: Title Page,

- Inside Title Page, Endpaper (1)".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TPM)*, Vol. 16, No. 4, pp. 29-36, 2013.
- [4] M. Martinez, C. Stier, and L. Falcon, L. "Judging a Book by Its Cover: An Investigation of Peritextual Features in Caldecott Award Books,"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CLE)*, Vol. 47, No. 3, pp. 225-241, 2016.
- [5] L. R. Sipe and C. E., McGuire, "Picturebook Endpapers: Resources for Literary and Aesthetic Interpretation,"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CLE)*, Vol. 37, No. 4, pp. 291-304, 2009.
- [6] A. R. Nam, and S. L. Kim. "The Narrative Relevance of Picture Book Endpapers: With a Focus on Narrative Compon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KJHE)*, Vol. 30, No. 4, pp. 553-564. 2021. DOI : 10.5934/kjhe.2021.30.4.553
- [7] T. Duran and E. Bosch, "Before and After the Picturebook Frame: A Typology of Endpapers," *New Review of Children's Literature and Librarianship (NRCLL)*, Vol. 17, No. 2, pp. 122-143, 2011.
- [8] J. J. Kim, and W. A. Shin. "The Meanings of the 'Paratexts' in Children's Picture Books Focusing on the Korean Authors' Books That Won the Bologna Ragazzi Awards."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KSECEC)*, Vol. 11, No. 3, pp. 179-202, 2016. DOI : 10.16978/ecec. 2016.11.3.008
- [9] D. J. Shin. "Chihach'ol-un Tallyo-onda," Seoul: Ch'obang, South Korea, 2003.
- [10] H. S. Cho and M. S. Yun. "P'at'chuk Halmom-kwa Horangi," Seoul: Woongjin Pub., South Korea, 2003.
- [11] K. S. Ko. "Mapop-e-kolin-pong", Seoul: Chaemi maju Publishing, South Korea, 2005.
- [12] Y. J. Kim. "Misulgwan-eseo mannan suhag", Seoul: YŏwŏnMidiŏ, South Korea, 2009.